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 오는데,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형아들을 보았다. 마침 한 어른이 오셨다. 그러자 그 형아들은 담배를 뒤로 숨겼다.

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그것을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는 나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는 아빠도 담배를 피우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서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병원에 가 보셨다.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으셨다.

결과를 보시러 간 아빠에게 두 개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 주셨다고 한다. 한 사진은 깨끗한데 한 사진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사진이었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이 아빠의 사진인지 짚어 보라고 하시자 아빠는 깨끗한

아빠의 금연



조 현 우

안양 부흥초등학교 3

사진을 선택하셨다고 한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뿌연 사진이 아빠의 사진이라고 하시며 폐 속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한다.

아빠는 깜짝 놀라 그날부터 담배를 끊으셨다고 한다.

그러나 아빠는 그 일이 어려워신지 자꾸만 실패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

다. 그러자 엄마께서, “여보, 뱃속의 아기도 폐가 뿌연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담배를 확실히 끊으셨다고 한다.

나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어른들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왜 담배를 못 끊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었다.

아빠가 퇴근하시고 낮에 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아빠, 제 덕분에 담배를 끊으셨으니까 한턱 내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께서는 웃으시면서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다. 엄마 아빠는 웃으시며 동전을 주셨다. 나는 동전을 저금통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담배는 안 피워야지.’

◀30

“빈아, 가서 담배 좀 사올래?”

책을 읽고 있는데, 아빠께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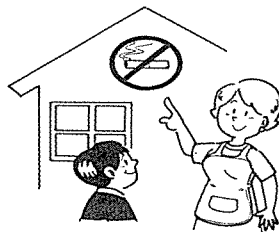
“아이, 왜 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께서는 오늘도 잔소리를 하셨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 모르세요?”

엄마의 잔소리는 계속해

아빠의 담배



정 빈

서울 강서초등학교 4

서 이어졌다. 나는 책을 덮어두고 가게로 나섰다. 우리 아빠는 담배를 즐겨 피우신다. 엄마 잔소리 때문에 몇 번이고 끊으려 시도해 보셨지만 번번이 실패하셨다. 아마 담배는 무척이나 맛있는 모양이다.

× × ×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마침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담배와 라이타가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다.

“형! 우리 저 담배 한 번 피워 볼래?”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말했다. 우리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해 보았다. 입안이 몹시 썩다. 연기 때문에 기침도 나왔다. 도대체 이런 담배를 왜 피우는 것일까?

형도 꼴룩거리며 기침을 했다.

그 때였다. 문이 열리면서 외출하셨던 엄마, 아빠께서 돌아 오셨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 뜨렸다.

“너희들 지금 뭐하는거야!”

아빠께서 소리를 지르셨다.

“보세요. 당신이 담배를 피우니까 애들도 저렇게 따라 하잖아요.”

엄마께서도 얼굴을 붉히시며 소리를 지르셨다. 우리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날 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가 가족 회의를 열으셨다.

× × ×

“애들아, 아빠가 생각해 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요, 아빠. 이제 담배를 피우시지 마세요.”

엄마는 잠자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지셨다.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서 너희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라다니. 정말 부끄럽구나.”

우리는 모두 함께 박수를 쳤다. 이제 더 이상 담배 때문에 말다툼하는 일은 없으리라. ㉔

“아버지, 담배 좀 끊으세요.”

“여보, 담배 좀 끊어요.”

“아범아, 담배 좀 끊어라.”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쇠귀에 경읽기다.

재작년 겨울에는 밤 12시가 넘어 담배가 모두 떨어졌다. 시골이라 가게도 없으니 옆집에 가서 주무시는 아저씨를 깨워서 담배를 빌려 오시기까지 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집에 담배를 한보루씩 사 놓으시고 피우셨다.

아버지는 누가 담배 선물을 하면 제일 좋아 하신다. 나는 담배 선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땀다. 그 돈으로 과일을 사 오면 참 좋을텐데 말이다.

아버지는 담배를 점점 많이 피우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머니랑 말다툼도 하시

아버지의 결심



김재철

삼척 미로초등학교 6

고 담배도 더 많이 피우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담배를 푹 끊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건 형 때문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이 담배를 피우다 아버지께 들킨 것이다. 우리 식구는 모두 놀랐다. 그러나 아버지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말도 안 하시고 담배를 끊으신 것

이다. 방 안에 한 보루씩 사 놓고 피우던 담배를 형이 아버지 몰래 한 개비씩 호기심으로 피우기 시작한 것이 골초가 된 것이다.

아버지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는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다. 형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담배를 끊었다.

그때 우리 집에 큰 태풍이 지나갔지만, 지금 그 태풍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담배 걱정이 없다. 형도 열심히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한다. 아버지도 담배를 안 피우시니 더 건강해져서 산에 버섯과 산나물도 캐러 잘 가신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㉕